

월간 넷제로 4월호_꿀벌과 날다

‘윙윙’ 벌들과 함께 날아다닌 찬란한 봄날

가볍게 날리던 봄날 햇살이, 이날은 한여름처럼 묵직했다. 토요일 오전, 미호동 마을은 평화롭고 찬란했다. 미호동 넷제로 공판장 앞에 사람들이 설레는 표정으로 하나둘 모여들었다. 노란색 양봉 슈트와 보호 장갑으로 온몸을 감싼 아이가 햇살 아래 반짝거린다.

4월 17일, 에너지전환해유사회적협동조합(이하 해유)과 대전충남녹색연합이 함께 준비한 [월간 넷제로 4월호_꿀벌과 날다] 프로그램이 열렸다. [월간 넷제로]는 시민이 탄소중립을 좀 더 편하게 경험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획해 매달 한 번씩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월간 넷제로 4월호] 참가자들은 해유 남은순 사무국장 안내로 미호동 넷제로 공판장 뒤쪽에 있는 ‘대청호 윙윙 꿀벌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대청호 윙윙 꿀벌 식당’은 기후 위기로 사라지는 꿀벌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시민과 함께 밀원 식물을 심고 가꾸는 공간이다. 미호동 주민과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지사, 에너지전환 해유, 대전충남녹색연합 등이 함께

준비하고 조성했다. 이곳에 꿀벌이 좋아하는 헛개나무 등 밀원수를 심고 벌이 좋아하는 들깨를 재배한다. 사람이 자연과 관계를 맺으며 꿀벌을 위해 차린 식당이다.

“전 세계 100대 작물 중 70% 이상이 꿀벌 같은 수분 매개 곤충에 의해서 열매를 맺는다고 해요. 근데, 기후 위기와 농약, 병충해 등으로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 들어 보셨죠? 이런 위기의식에서 유엔이 2017년에 5월 20일을 ‘세계 벌의 날’로 지정해 다양한 캠페인을 펼치죠. 우리는 실질적인 활동을 하자고 마음먹고, 2024년에 ‘대청호 윙윙 꿀벌 식당’ 문을 열었어요. 이곳이 본점이고 대청호 여러 마을에 지점이 있어요. 가을에 들깨꽃이 피면 꿀벌이 많이 찾아와서, 날갯짓 소리가 헬리콥터 소리처럼 크게 들려요.”

대청호 윙윙 꿀벌 식당을 소개하던 남 국장은 처음으로 토종 벌통을 분양받아 이곳에 가져다 두었다는 소식도 전했다. 잘 키울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걱정도 숨기지 않았다. 이날 대청호 윙윙 꿀벌 식당에 토종 벌통을 분양한



토종벌 명인 김대립 씨



벌집들을 꺼내 들어 설명을 이어 가는 김대립 씨

이는 김대립 씨다.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에서 할아버지와 아버지 뒤를 이어 3대째 토종벌을 키우는 토종벌 명인이다. 일곱 살 생일에 벌통을 선물로 받아 지금껏 벌을 키우는 전문가다.

“2010년쯤에 ‘낭충봉아부패병’이 돌아서 우리 토종벌이 멸종 위기에 처한 일이 있었어요. 다행히 지금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거의 복원했어요. 호랑이가 죽어 가족을 남기듯 그때 사건은 ‘꿀벌이 지닌 가치’를 확산하는 계기였죠.”

김대립 씨는 ‘꿀벌’도 법적으로 가축이어서, 많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야기했다. 다른 가축보다 사육 농가가 많지 않고 산업 규모도 크지 않아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행히 꿀벌 멸종 위기를 겪고 나서, 꿀벌이 지닌 가치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꿀벌은 양봉 농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태계 보전과 식량 안보 등 공익적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는 인식이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 잡았죠. 유럽에서는 소, 돼지와 함께 꿀벌을 3대 가축으로 설정해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꿀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어야, 인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한 김대립 씨는 참가자들을 토종 벌통 앞으로 이끌었다.

이제 막 이사를 마친 벌통 주변으로 벌이 날아다닌다. 양봉보다 우리 토종벌은 크기가 작고 색이 더 까맣다. 양봉 슈트를 입고 보호 장갑을 낀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참가자가 더 많았다. 귀찮아하지만, 괴롭히지 않으면 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도 엿보였다.

“꿀벌을 생각하면, 쏘일까 봐 두려워하는 분이 많죠. 꿀벌은 침을 쏘면 자기도 죽

어요. 집단이 위험하다고 생각할 때 몸을 던져 지키는 거죠. 그런 벌미만 제공하지 않으면 괜찮다는 얘기이기도 하잖아요? 벌이 온다고 막 손사래 치고 움직이면 더 쏘일 수 있어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좋아요.”

벌통 앞에 쭈그려 앉은 김대립 씨는 벌들

에 ‘후후’ 하고 입김을 불었다.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신경이 곤두선 벌을 진정시키는 행동이었다. 잠시 후 벌통 위를 덮었던 덮개를 하나씩 벗겨 내자 벌통 내부가 드러났다. 벌이 지은 세상과 무리 지어 날아다니는 벌을 본 참가자들 눈빛이 반짝거린다. 김대립 씨는 벌통 안

새 나라를 건설하려고 나온 벌떼



양봉 슈트를 챙겨 입은 참가자



대청호 꿀벌 레인저 서염숙 씨



밀원수 가득한 숲길을 걷는 참가자들



에 차곡차곡 꽃아 두었던 벌집들 하나를 꺼내서 들어 올렸다. 벌집을 보여 주며 벌집 구조와 기능, 여왕벌과 수벌, 일벌 등 흥미로운 그들 생태에 관해 설명했다. 어린 벌 몇 마리를 떼어 참여자들 손에 올려 주고 관찰할 시간도 주었다. 어리둥절한 벌은 손바닥 위를 기어다녔다. 여기저기서 감탄과 ‘깹깹’거리는 탄성이 나온다.

“벌 생태계를 관찰하면, 우리 인간 세상에 있는 모든 정책이 다 들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요. 벌이 구축한 사회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합리적이예요.”

김대립 씨는 추운 겨울을 건디는 벌들 생존 전략인 ‘봉구蜂球’를 효율성과 합리성을 느낄 수 있는 예로 들었다.

“여왕벌과 어린 개체를 가운데 두고 공 모양으로 뭉쳐 뭉쳐 찬 기운이 안으로 파고들지 못하도록 해요. 공극을 거의 없애는 거죠. 꿀벌들의 이글루예요. 펥귄도 추울 때 무리 짓고 허들링을 하죠. 일정 시간마다 안쪽 펥귄과 바깥쪽 펥귄이 자리를 바꾸잖아요. 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이 든 벌이 가장 바깥으로 가서 추운 날씨를 버티다가 죽죠. 나중에 보면, 맨 바깥쪽에 있던 벌이 죽은 채로 매달려 있다가 우수수 떨어져요.”

계획한 일정 때문에 마치려고 할 때마다 질문이 이어지면서 이야기를 쉽사리 끝맺지 못했다.

꿀벌 명인 김대립 씨로부터 꿀벌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은 참가자들은 대청호 꿀벌 레인저 서염숙 씨 안내로, 미호동 양봉 현장으로 떠났다.

대청호 꿀벌 레인저는 대청호 꿀벌생태학교 수업을 들은 미호동과 삼정동, 이현동 주민으로 모두 7명이다. 이들은 마을과 양봉장 주변을 월 1회 이상 자율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벌과 꽃을 관찰하는 일을 한다. 이날 안내를 맡은 대청호 꿀벌 레인저 서염숙 씨는 마을 태양광 발전을 관리하고 마을 안내도 맡는 미호동 솔라시스터즈로도 활동 중이다.

큰길을 건너 숲 초입에 이르렀을 때 양봉장이 바로 나타났다. 서염숙, 이경희 씨 부부가 40년 정도 키운 양봉장이었다.

“참나무는 화분이 많아서 벌이 좋아해요. 새끼 벌을 양육할 때 필요하거든요. 이견 황매화고요. 이거는 아로니아예요. 저건 모과나무예요. 벌통은 아까 보신 토종 벌통하고 비슷한데, 양봉 벌통이 조금 더 커요.”

벌통이 있는 곳에서 숲길을 따라 올라가면 부부가 거주하는 집이 있고 그곳까지 다양한 밀원수를 심어 관리하고 있었다. 100년이 넘었다는 배롱나무부터 오가피나무와 보리수나무, 먹감나무, 백합나무, 질레나무, 헛개나무, 산단풍나무 등 종류가 정말 많았다.

“사람은 예쁜 꽃을 좋아하잖아요. 벌은 꽃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향긋하고 생산성 높은 나무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나무를 가져다가 많이 심었죠. 저건 빈 벌통인데, 분봉할 때 다른데 가지 말고 여기로 오라고, 곳곳에 여러 개 두었어요. 작년에 저렇게 해서 세 통 받았어요.”

찬란한 봄날, 벌이 뱅뱅거리는 조봇한 오솔길을 걸으며 잊었던 오래전 감각이 떠올랐다. ■